

產業의近代化에 따른 勞動力의方向

한양대학교 교수 禹基度

지난 1962年從事부터 시작된 소위 經濟開發計劃의 계획적인 推進은 이 나라의 여러 分野에 많은 變化를 가져왔음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터 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勞動力」에 어떠한 變化가 일어났으며 또한 앞으로 「勞動力」이 여하한 方向으로 產業의近代화와 關連지워져야 하겠느냐를 分析하는데 있는 것이다. 經濟開發計劃의 實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눈앞에 나타난 變化 가운데서도 京釜間 高速道路라든가 大都市郊外에 자리잡은 大規模의 工場·각종 纖維製品의 市場氾濫·首都「서울」의 爆發的인 人口集中等의 現象을 肉眼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같이 어떤 形態를 갖추고 있어서 눈으로 쉽게 볼 수 없는 여러가지 變化등이 이 밖에 뚜렷하게存在하고 있다는 사실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눈에 쉽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 經濟의 發展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變化의 하나로서 労動力의 경우를 더듬어 보기로 하자.

아다실이 高等學校의 社會生活科目이나 大學의 經濟原論을 講義할 적에 資本이나 自然(土地)과 함께 사람의 労動力を 生產의 三大要素로서 가르쳐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記憶하고 있다. 이러한 生產의 三大要素 가운데서도 工場施設이나 原料같은 것은 구체적인 形態를 物體로서 갖추고 있는 까닭으로 그것이 變化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労動力의 경우에는 이것을 所有하는 사람과 生產要素로서의 労動力이 서로 떠러질 수 없는 關係를 지니고 있다는 特殊性과 労動力의 內容이 사람의 肉眼으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労動하겠다는 意思와 労動能力을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労動力에 관한 變

化를 알아보는 일은 資本이나 自然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운 性質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나 労動力過剩을 特徵으로 하는 東南亞諸國의 경우에는 근대적인 「勞動市場」의 形成이 없는 까닭으로 完全乃至 超完全雇傭狀態의 先進國에 比하여 労動力에 어떠한 變化가 일어났느냐를 알아본다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筆者の所感인 것이다. 쉽게 말하여 金融市場·證券市場등의 資本市場과 一般製品市場으로서의 東大門이나 南大門市場 같은 程度로 明確히 形態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労動市場(各級職業安定 및 有料職業紹介制度)의 未發達은 生產要素로서의 労動力を 둘러쌓고 蒼起되는 각종 變化를 正確히 表示해주는 市場으로서의 機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生產要素이든 그 變化는 각각 市場에 있어서 그 商品에 대한 需給間의 一致 또는 不一致를 통한 價格變化로서 反映되는 까닭으로 市場은 變化를 需要者와 供給者에 傳達해주는 唯一하고도 가장 適切한 場所인 것이다.勿論 人間의 労動力에 대하여서는 ILO(國際勞動機構)憲章에서 이것을 商品으로 다루어서는 않된다고 明示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개의 指標 또는 當爲(Sollen)으로서 人類社會의 指向點을 揭示한 것이지 결코 現實의 自由資本主義社會를 가르쳐서 말한 것은 아니다 모든 生產要素은 需要와 供給의 關係를 土台로 하는 價格위에서 配分된다는 嚴然한 經濟法則에 拘束되고 있으며 労動力의 경우에도例外는 아니라는 것이 労動經濟의 現實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 労動市場의 形成이 不完全하다하지만 이야기를 進行시키는 中心點을 労動力의 需要와 供給 그리고 労動力의 價格이라 할 수 있는 賃金에 둔다 함을 미리 못밖아 두는 바이다.

產業의近代化以前의段階로서停滯的인農業構造에全的으로依存하든時代에있어서는過剩人口狀態下의零細農의인幼稚한農器具를사용하는간단한勞動集約의인農業勞動과一部手工業勞動으로經濟社會의維持運營즉資本의再生產過程이反復이事故없이이루어질수있었지만道具아닌機械와이機械를움직이게하는勞力源이石炭으로옮아진產業革命을經由하고그後連이어서繼起되는技術의革新을바탕으로近來의產業近代化는人間의勞動力에대하여각종의새로운變化를가져왔으며이에對應해야할準備를새로히갖추도록促求하고있는急進展하는產業社會속에우리들을몰아넣고있는것이다. 우선다음에서우리나라歷史上처음으로產業의近代化를始動케만든經濟開發計劃이着手되었던지난1962年부터勞動力を「全體」로서고찰할적에그곳에어떠한變化가이러났는가를다음에서描寫해보기로하자.

〈표 1〉 경제활동인구 단위: 1000명

연월	생산연령인구 (14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대전년차	경제활동참가율
1963 평균	15,685	8,653	—	55.2
64 "	16,348	8,893	240	54.4
65 "	16,591	9,199	306	55.4
66 "	16,840	9,325	126	55.4
67 "	17,169	9,504	179	55.4
68 "	17,433	9,757	253	56.0
69 "	17,579	9,818	61	55.9

자료: 경제활동인구연보, 1969

위의「표 1」에서勞動力人口는1963년부터69년에이르기까지年間2.1%의比率로增加해왔음이밝혀지고있으며해마다약194萬의勞動力増大를나타내고있다그러면年間2.1%정도의勞動力增加率이란都大體어떠한뜻을가지고있는것일까?

단적으로말하여「一般的으로勞動力의供給이持續的으로潤澤한經濟는經濟成長率도높으며反對로勞動力의供給이계속해서枯渴狀態에있는經濟는經濟成長率도낮다」는것이近來의研究結果에서밝혀진勞動經濟의命題임에비추어年間2.1%의比率이란것이다른나라의경우와比較해서어느정도이냐를알아봄이무엇보다重要하다고말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표 2〉 勞動力·GNP의年增加率 (單位: %)

國名	勞動力 1950-55	GNP 1950-55	勞動生產性 1950-55
Japan	3.1	8.8	5.8
U.S.A	1.3	4.1	2.6
Canada	1.8	4.5	3.0
France	0.5	4.2	3.7
West Germany	2.7	9.8	6.6
Italy	0.8	5.9	4.9
U.K	0.8	2.9	2.0
Austria	0.8	6.8	5.5
Denmark	0.3	1.5	1.2
Holland	1.3	4.9	3.5
Norway	0.6	3.5	3.0
Sweden	0.3	3.0	2.7
Switzerland	0.9	2.6	1.7
Greece	1.6	6.7	5.1
Portugal	0.7	2.8	2.1
Turkey	2.3	6.6	4.3
Ireland	-0.5	1.6	2.1

日本經濟의構造的變貌에關한研究 p. 169

日本經濟調查協議會, 1964年發行

위의「표 2」를보는데있어서다음의사실을사전적으로留意해야한다. 즉「표 2」의作成者인梅村又次教授에의하면勞動力增加率과 GNP成長率의相關係數는0.84임으로國際間에있어서橫斷的으로나타난GNP成長率의差는그것의약70%가이에對應하는勞動力增加率의差에의하여説明된다는點이다「표 2」에서위의説明方式에符合되지않는것같은印象을던져주는奧地利와伊太利같은경우는1950-55年當時相當量의不完全就業者가있어서이로말미암아勞動力增加率의值에서나타난것以上으로勞動力의供給이潤澤해진것으로解釋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의勞動力增加率은앞서말한바와같이年間2.1%로増大하고있음으로年成長率10%를가능케하는가장중요한勞動經濟의要因의구실을다해왔다고斷言할수있다. 쉽게말하면不完全就業者數가위에서말한顯在的인勞動力增加以外에도許多히存在하고있는現實에있어서이같은豊富한勞動力의條件이지금까지의高度經濟成長을有力하게뒷받침했었았고앞으로相當期間에걸쳐勞動力의供給側面을念慮하지않아도좋다는이

야기를 一應 할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量
的인 供給에 오늘날 우리나라 產業社會가 當面하
고있는 問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質的인
側面에 무엇인가 異常한 事態가 到來했다는데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勞動力問題의 焦點이 所在
하고 있다함을 깊이 銘心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머리수는 많은데 쓸모있는 사람의 수는 적다」는데 우리 企業社會가 直面하고 있는 今日의 樣相을 要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좀더 仔細히 말해서 쓸모없는 非生產的이고 濫費愛好的인 사람들의 머리수가 우리나라 「勞動力人口」라는 둑안에 지나치게 많은反面에 技能을 갖춘 生產的인 사람의 머리수가不足하다는 것이 어떤 意味에서는 1962年以來계속 實踐되어온 經濟開發計劃의 結果를 雇傭의 「류·포인트」위에서 描寫한 青寫眞의 縮圖라고 말할 수도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勞動力過剩때문에 經濟의 効率이 低下될뿐만 아니라 각종의 非合理的인 放慢한 企業經營을 强要하기도 하며 각종 社會犯罪와 社會惡을 招來하는 不幸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反面에 經濟의 高度成長을 계속해서 뒷받침해줄 수 있는 所重한 源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들 눈앞에 떨어져 있는 問題 즉 쓸모있는 사람——技能있는 勤勞者——의 需要供給에 관한 現況을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科學技術處의 委嘱下에 人口問題研究所에서 研究調查한바에 의하면 1967年 6月 15日現在 우리나라에서 就業中에 있었는 科學·技術系人力의 總數는 253,757名으로 採用中에 있다. 이 밖에 失業狀態에 있거나 未就業中인 人力 16,337人을 合치면 都合 270,094人인 것이다. 就業中인 技能系人力을 技術者 및 科學者 技術工 및 研究助手 技能工으로 三大分類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圖示할 수 있다.

圖 1 就業中의 科學·技術系人力의 技術程度別
構成比 (1967. 7. 15. 現在)

A	B	C 94.27%
↓	↓	

∴ 技術者 및 科學者 = A
 技術工 및 研究助手 = B

技能工 = C

위와 같은 圖 1에 의한 技術程度別構成의 우리나라 現況은 오늘날의 다음과 같은 先進諸國에 있어서와 같은 理想的인 構成圖(圖 2)에 비추어 몇 가지 基本的인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짚작할 수 있다.

圖 2 技術程度別 科學技術系人力의 理想的構成比

A	B	C
3.23%	16.15%	80.62%

∴ 技術者 哭 科學者 = A
 技術工 哭 研究助手 = B
 技 能 工 = C

위의 두 가지 圖示된 것을 比較하면 우리나라
人力의 技術程度別 構成이 极히 낮은 것이라고
우선 지적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最高位의
科學知識과 技術을 지니는 A 集團과 中間層으로
간주되는 技術工階層의 比重이 지나치게 弱한 것
으로 되어 있는 反面 最下層의 底邊을 이루는 技
能工集團이 嶠型的으로 外觀上 肥大한 것으로 表
示되고 있다. 產業部門別 分析을 일단 度外視하
여 단순히 그 量的인 部面만을 보드라도 技能水
準의 低位性을 餘地없이 露出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產業部門別로 고찰하면 더
深刻한 問題點이 發見되고 있는 것이다.

즉 就業者의 7.05% 에 해당하는 17,885 人이
礦業에 종사하고 있으며 84.33%에 해당하는 21
3,999 人이 製造業에 1.43%인 3,635 名이 建設
業에 그리고 餘他人員이 電氣·가스 및 其他
어비스業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產業別
勞動力分布를 產業中分類別로 보면 가장 많은 就
業者를 가진 產業으로서는 全體技術系人力의 25.
92%에 해당하는 65,769 人이 종사하는 纖維製
造業이며 工業近代化의 核이라고 꼽을 수 있는
第1次金屬製品製造業等 金屬·機械·分野의 總
人員이 1969 年現在 技術系全體人力 (就業中) 41
2,654 人 가운데서 78,363 人으로서 그 比率이 不
過 18%에 해당하며 1950 年代의 西獨·美國·
日本 등 先進國의 重工業化比率를 從業員數에 의
하여 測定했을 때에 그 比率이 大體로 50%를 前
後하고 있었다는 事實에 미루어서도 우리나라 技
術系人力이 經工業에 偏重해 있음을 確認할 수 있
다. 우리나라 技能系人力의 分析에 있어서 하가

지操心해야 할 問題點은 위의 圖1에서 본바와 같이 技術者 및 技術工 등 高級 및 中位 技術人力이 일반적으로 稀小한데 比하여 底邊에 해당하는 技能工階層이 지나치게 肥大해 있다는支配的인結論을 一應首肯하면서도 거기에 默過할 수 없는 矛盾된事實이 發見된데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소위 技術者·技術工에 比한「技能工階層의 肥大性」을 100%妥當性 있는 것으로肯定할 수 없다는 데 또한 가지의 重大한 問題點이 有在하는 것으로思料되는 바이다. 왜냐하면 「似而非技能工」의 養成이 그대로 國際的水準의 技能工範疇와 同一한 테두리 안에서 取級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萬若嚴格히 國際的인 基準에 비추어 우리나라 技能工層의 比率이 全體 技術技能人力 가운데서 50%정도 밖에 賽된다면 이는 圖2의 理想型에 비추어 또한 크다란 問題點으로 登場할 수 밖에 없다. 先進國인 外國의 技能水準에 뒤떨어지지 않은 그에게도 많은 技能工이 우리나라 全體 技術技能系人力의 壓倒的인 部分 즉 94.27%를 占하고 있다는 現實分析의一般的結論을 그대로 받아드려기에는 우리의 現實이 너무나 距離가 먼 것 같다. 아다실이 우리나라 工業教育의 現況이나 職業訓練의 内容이 前提의으로 國際水準에 비추어 再檢討됨이 必要하며 落後된 技術教育施設이나 内容의으로 貧約한 形式上의 職業訓練過程을 통해서 나오는 技能工이 似而非乃至水準以下の 技能役割에 하지 못할 것은 일종의 常識이라 하겠다. 따라서筆者は 「技能工階層의 肥大性」이란 常識的結論을 받아드리는 것 보다도 오히려 이의 虛偽性을 實證的으로 確證하는 일이 時急하다고 보며 이 같은 作業을 통해서 우리나라 技能系人力再編成을 위한 基本方向이 올바르게 設定될 수 있을 것으로 確信하는 바이다.

다시 말하면 技能工階層의 「肥大性」의 内容을 깊이 分析할 心要가 있으며 이를 말해주는 資料로서 다음 「표 3」을 들어 보겠다.

위의 「표 3」에서 技能工의 不足과 過剩의 二律背反的現象을 同時的으로 表示하는 業種으로서 食料品·飲料品·고무제품 및 家具·裝置品 등 모두가 所要되는 勞動力의 質이 极히 簡單하고 最

〈표 3〉 技能工의 過不足現況 (單位: %)

業種	計	不足	약간부족	適當	過剩	下應答
食料品	100	10.9	28.1	53.2	7.8	—
飲料品	100	4.9	14.1	70.7	10.3	—
纖維	100	6.1	43.4	48.5	2.0	—
靴衣裝身品	100	18.4	21.1	60.5	—	—
製材木製品	100	4.3	37.8	55.7	2.2	—
家具裝置品	100	8.3	41.7	37.6	4.1	8.3
紙類·紙製品	100	7.4	40.7	51.9	—	—
印刷·出版	100	31.1	31.0	37.9	—	—
皮革·同製品	100	25.0	33.3	41.1	—	—
高壓製品	100	17.6	41.2	35.3	5.9	—
化學製品	100	10.3	38.5	43.6	7.7	—
石油·石炭	100	—	16.8	75.0	4.1	4.1
土石·유리	100	12.5	43.7	43.8	—	—
第1次金屬	100	9.0	50.0	36.4	4.6	—
金屬製品	100	16.7	5.4	77.9	—	—
機械製品	100	21.1	52.6	26.3	—	—
電氣機器	100	14.7	44.1	41.2	—	—
輸送機器	100	24.4	34.1	41.5	—	—

: 商工時代 69年 1月號, 大韓商工會議所發行
Page. 53

下位의 低賃金業으로 손꼽히는點을 생각할 때 15—19 歲 女性入口의 進學率上升에서 低廉한 見習女工에 대한 需給事情이 地域에 따라 不足과 過剩으로 각각反映되고 있는 것으로 解釋되어지며 한편으로는 似而非技能工은 있어도 정말 心要한 資質을 갖춘 技能工은 不足하다는 意味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同表에 의하여 輕工業分野에 우리나라 技能人力이 偏重되어 있다는一般的結論이 技能工에 置重해서 養成할 切實性이 없다는 이야기로서 論理的飛躍을 해서는 賽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實證할 수 있다. 즉 靴·衣·裝身品·紙類·紙製品·印刷出版·皮革·同製品·土石·유리等 業種에서 한결같이 過剩 아닌 不足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위의 말을 立證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까지 全體의 勞動力供給面을 지난 63年부터 69년까지 고찰하는 同時に 技術技能系人力의 需給現況을 이야기하는데 그치었으나 勞動力長期展望과 賃金에 대한 論議를 다음 機會에 미루기로하고 筆者の個人事情 때문에不得已 이 것으로 이번 글을 끝맺지 않을 수 없음을 添言하면서 끝을 놓는다.